

농어촌공사 경남본부 '2025년 농촌공간정책 워크숍' 개최

윤 최원태기자 | 승인 2025.06.15 17:02 | 10면

경남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·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원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 농업정책과와 12~13일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'2025년 경남 농촌공간정책 워크숍'을 개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)는 경남도 농업정책과(과장 성흥택)와 12~13.일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, 공사 사업담당자 및 사업관계자가 참석하는 '2025년 경남 농촌공간정책 워크숍'을 개최했다.

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가 새로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시·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을 돕기 위해 개최되었으며

신규 정책을 다루는 만큼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公社 전문가, 선도지구 계획수립 전문가가 참여해 경남의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강의를 듣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.

강의의 주제는 ▲계획수립 방법, ▲선도지구 사례, ▲특화지구 지정에 관련된 내용과 주민참여형 계획, ▲공간계획 활성화방안, ▲대표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이

해로 진행되었다.

저녁 만찬시간에는 공사에서 시행 중인 합천읍 농촌중심지사업의 동아리 난타 공연 팀 '려천'의 공연 후 사업 관계자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.

한편, 공사는 경남 광역지원기관으로서 농식품부의 새로운 정책이 농업·농촌이 처한 난개발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, 농촌이 삶터·일터·쉼터로써 살기 좋고,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.

최원태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최원태기자